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통한
철학상담의 의의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김미혜

2021년 6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통한 철학상담의 의의

지도교수 서명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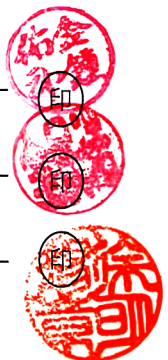
김미혜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6월

김미혜의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종익
위 원 김민호
위 원 서명석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21년 6월

The Significance of Philosophical Counseling
in Plato's 'the Allegory of the Cave'

Mi-Hye Kim

(Supervised by Professor Myoung-Seok Se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Education [Master of
Psychotherapy]

2021.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Myoung-Seok Seo, Prof. of Psychotherapy

(Name and signature)

Date

Department of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차 례

국문초록	ii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방법	3
II.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와 철학상담의 선이해	5
1. 리콤폴르 해석학 단계에 따른 동굴의 비유 해석: 설명과 이해의 단계	5
2. 지혜와 철학상담	9
III.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통한 철학상담의 실제	14
1. 동굴의 비유에 따른 철학상담의 실천: 전유의 단계	14
2. 철학상담의 실제 사례	21
IV.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통한 철학상담의 의의	27
1. 자기 해석	27
2. 자기 한계 넘기	28
3. 관여와 참여	32
V. 결론	34
참고문헌	36
ABSTRACT	42

그림 차례

[그림 I-1] 연구틀	3
[그림 II-1] ‘동굴의 비유’의 동굴 형상	6
[그림 III-1] 철학함의 파라디그마	19
[그림 IV-1] 인간이 살아가는 진리와 허상이라는 두 세계	29
[그림 IV-2] 어미닭과 병아리의 두 부리가 만나는 줄탁동시의 세계	30

국 문 초 록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통한 철학상담의 의의

김 미 혜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지도교수 서 명 석

이 연구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현재로 소환해 놓고 해석하여 철학상담이 우리 삶에 주는 의의를 밝히는 것이다. 연구자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의 해석을 위해 리콰르 해석학 이론을 따른다. 리콰르 해석학 이론은 설명-이해-전유의 과정을 거치며, 그 모든 과정에 소격화[거리두기]가 함께 한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플라톤이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형인 글라우콘과의 대화를 정리한 것이다. ‘동굴의 비유’ 속의 죄수는 처음 동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밖으로 나오기를 주저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고 태양이 비치는 동굴 밖의 세계를 경험하고는 그 진리를 밝히기 위해 동료들이 있는 동굴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 연구자는 리콰르 해석학의 도움을 받아 동굴 속의 동료들에게 진리를 알리기 위해 동굴로 다시 들어가는 그 풀려난 죄수를 현재의 관점에서 철학상담자로 해석하였다. 또한 그 죄수는 지혜를 획득한 내담자, 즉 자기 삶의 철학자이다. 동굴 속에 포박되어 벽에 비치는 그림자를 실재라고 믿고 있는 죄수들은 자신의 세계관과 관습에 갇혀 허우적대는 우리 인간 존재이다. 그들은 어둠 속 어리석음에 빠져 사물의 실재와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동굴 밖 태양으로 나와 진리를 마주하고 지혜를 습득하여 그것을 동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동굴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도 다름 아닌 그 인간 존재이다. 그들은 철학자, 철학상담자이며 더 나아가 삶에서 ‘철학함’을 하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다. 해석학적 순환의 ‘열린 결론’에 따라 이들은 자기 존재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철학상담은 내담자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해소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내담자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철학상담자가 내담자의 지혜를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내담자가 ‘플라톤의 동굴’, 즉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존재를 탐색하도록 한다. 둘째, 동굴의 경계를 넘어 나오는 길을 탐색한다. 그것을 위해 내담자의 매일의 사건을 분석하고 내담자의 삶에서 말해 주는 대안의 개념을 찾도록 한다. 철학함의 정식인 끊임없는 질문과 사유와 사색을 활용한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죄수의 행보는 철학상담의 과정과 같다. 실제 철학상담의 과정에서 내담자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의 길로 이끄는 과정은 동굴의 비유와 같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통한 철학상담의 의의는 어리석음에 빠져 고통을 겪는 내담자를 지혜의 길로 이끌어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 주요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해석학, 철학상담, 지혜, 어리석음

I. 서론

철학이 휴머니티에 대해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해볼까?

그건 상담이라네.

— Lucius Annaeus Seneca(Raabe, 2001 / 김수배 옮김, 2010: 20)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그 어느 시대보다 발달된 문명과 기술의 혜택을 받으며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현대인이 누리는 이러한 풍요가 실제 삶에서 행복과 비례하지 않음은 여러 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철이 21세기의 질병은 박테리아적이거나 바이러스적이 아닌 신경증적인 질병(한병철, 2010 / 김태환, 2012: 11)이라고 규정했듯이, 현대인들은 우울감, 허무함, 삶의 무의미함, 실존적 좌절 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삶에서 더 큰 공허감을 느끼고 실존적 의미를 찾지 못해 내적 방향을 한다. 이러한 고통은 물질 만능주의, 기계주의, 이성주의, 경쟁주의 등 잘못된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현대인이 겪는 고통은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을 보는 어리석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현대인의 마음의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 현재 여러 가지 기법의 심리상담이나 정신의학과 치료가 성행하고 있으며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실존의 문제, 가치관과 세계관의 문제, 삶의 근원에 대한 문제 등 삶에 대한 철학적 검토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고통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실증적 치료법이 아닌 삶의 근본을 다루는 철학적 접근이 필수 요건이 되었다. 인간의 사고방식을 검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학이나 심리학이 아닌 철학이 더욱 더 필요하게 된 것이다(김선희, 2015: 25).

현대인들이 영혼의 병,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철학적 사고와 통찰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그것을 도와주는 철학실천이 바로 철학상담이다. 철학을 바탕으로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치유하고자 하는 철학상담은 우리 생활의 기술이고 실천인 철학함의 구체적 행동이다. 철학상담은 철학적 대화를 바

탕으로 인간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의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철학상담이 자신 내면의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방황하며 고통을 겪는 인간을 지혜의 길로 이끌어 삶의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 수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연구자는 고대의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현재로 소환해 해석함으로써 철학이 과거에 묻혀 현재와 괴리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 삶의 기술이며 삶의 지혜를 쌓는 것임을 밝힌다.

철학상담의 현대적 요구에 맞춰 현재 많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철학상담의 실제 모델을 제시하고 있고, 철학상담의 실천을 위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Ludwig Wittgenstein은 철학상담의 정합적인 모델과 실질적인 방법을 구성하기 위해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있음을 말하기 위해 ‘실이 하나의 섬유 가닥을 그 핵으로 삼지 않고 여러 섬유 가닥들이 하나로 엮일 수 있다’는 비유를 들었다(Raabe, 2001 / 김수배, 2010: 7). 연구자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통해 지혜를 상담틀로 놓고 철학상담의 연구에 한 가닥의 실을 엮어보고자 한다. 플라톤과 철학상담에 관련해서 연구한 것으로는 세계관 탐색을 중심으로 다루는 Ran Lahav의 *Stepping out of Plato's cave: Philosophical counseling, philosophical practice and self-transformation*(2016)이 있고, 국내에서는 장영란(2011) 등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에 관한 논문들이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물들을 참고하면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와 철학상담을 접목시켜 철학상담의 의의를 밝힐 것이다.

연구자는 ‘동굴’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철학상담의 개념틀로써 지혜를 찾았다. 지혜의 의미와 지혜를 습득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철학상담의 과정에서 내담자로 하여금 지혜를 함양하여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이끌 수 있음을 밝힌다. 철학상담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의 길로 안내하는 기능을 함을 설명하기 위해 지혜의 의미를 살펴보고, 지혜를 실질적으로 함양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이 논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현재로 소환해 현재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철학상담의 의의를 밝히는 것이다.

2. 연구방법

연구자는 I 장에서 현대인들이 어리석음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문제의식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연동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어떻게 철학상답에 응용할 것인가?
- 어리석은 인간을 어떻게 지혜의 세계로 이끌 수 있을까?
-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연구자는 위에서 제시한 문제의식과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그림과 같은 연구의 틀을 사용하여 연구결과를 얻을 것이다.



[그림 I -1] 연구틀(서명석, 2019b: 783)

이 논문의 연구방법은 리쾨르 해석학 이론을 활용하는 것이다. 위 그림 I -1 연구틀의 전개 단계로써 연구자는 다음 II장과 III장에서 리쾨르 해석학을 활용할 것이다. 해석학은 텍스트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론이다. 텍스트란 글에 의해 고정화된 모든 담화이며(Ricoeur, 1981 / 윤철호, 2017: 258), 텍스트의 메시지를 깨내는 것이 해석학이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텍스트로 하여 폴 리쾨르의 해석학 이론에 따라 텍스트를 설명하고 이해하고 전유화하

는 과정을 거친다. 그 과정에 텍스트들과 연구자 사이에 객관적 거리두기를 하여 텍스트를 해석할 것이다.

리코르 해석학은 텍스트를 해석함에 있어 설명, 이해, 전유의 과정을 거친다. 설명은 텍스트의 내적 구조를 탐구하는 것이고, 이해는 텍스트를 읽는 사람의 눈으로 텍스트를 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의미를 찾는 것이다. 전유는 텍스트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으로 해석자만의 새로운 세계의 지평을 여는 것이다. 즉, 전유란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다르고 낯설었던 것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Ricoeur, 1981 / 윤철호, 2017: 314). 리코르 해석학의 과정인 설명, 이해, 전유에 걸쳐 각 단계에서 소격화를 함께 한다. 소격화는 텍스트를 무조건 찬양하며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자신에게 맞게 적용시키는 것이다. 소격화, 즉 객관적 거리두기는 텍스트와 비판적 거리를 뒀으로써 객관화를 가능하게 하는 태도이며(Ricoeur, 1981 / 윤철호, 2017: 231), 텍스트를 해석할 때 텍스트의 진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해석학은 해석의 전체 과정에 소격화를 바탕으로 하여 설명, 이해, 전유의 과정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해석학적 순환을 이룬다(Ricoeur, 1981 / 윤철호, 2017: 315). 설명과 이해의 변증법을 이루어 ‘열린 결론’을 갖게 된다. 연구자는 리코르 해석학 이론의 소격화와 설명, 이해, 전유의 과정을 거치면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해석한 후 그 과정에 따르는 연구결과로써 IV장에서 철학상담의 의의를 밝힐 것이다.

II.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와 철학상담의 선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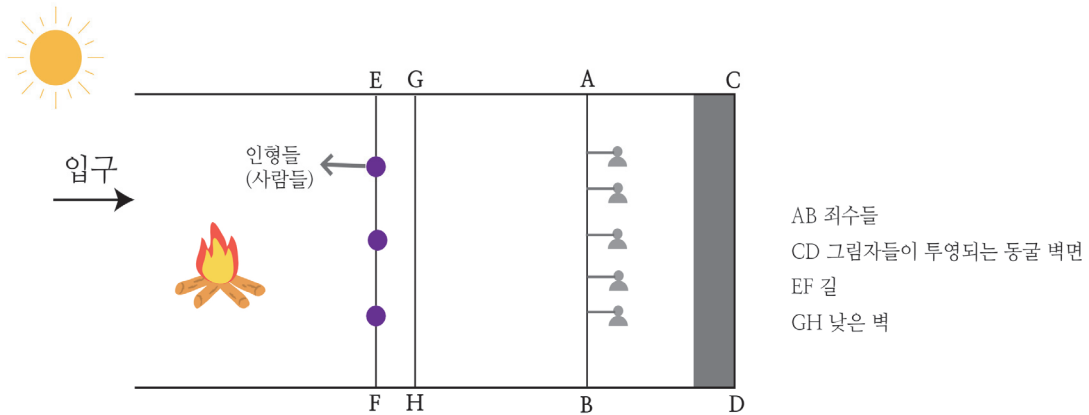
나는 철학상담을 지혜와 관련시킨다.

— Jose Barrientos-Rastrojo(서명석, 2018a: 74).

1. 리콤폴르 해석학 단계에 따른 동굴의 비유 해석: 설명과 이해의 단계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플라톤의 많은 작품 중 중기에 쓰여진 『국가』 7권에 나온다. 소크라테스는 직접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글로 남기지 않았으며, 제자인 플라톤이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행적과 제자들과의 대화를 정리하였다. 플라톤의 작품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말하고 있으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사상을 함께 엿볼 수 있다. 플라톤은 태양의 비유, 선분의 비유, 그리고 동굴의 비유를 들면서 이데아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려고 했다. 그 중 ‘동굴의 비유’는 철학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잘 알려진 우화이다. 이 이야기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형으로 알려져 있는 글라우콘과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플라톤은 자신의 철학을 서로 다른 목소리와 서로의 주장이 오가는 것이 필요한 대화라는 형식으로 풀어냈다(Blackburn, 2007 / 윤희기, 2014: 20). 이런 대화의 주된 인물인 소크라테스는 물론 플라톤은 다른 해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융통성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은 이미 고대부터 잘 알려져 있었다(Blackburn, 2007 / 윤희기, 2014: 20). 플라톤은 우리가 철학을 도구로 삼아 자신을 변화시키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고 있다. 연구자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로부터 영감을 얻고 리콤폴르 해석학의 도움을 받아 우리 삶에 대입해 보고자 한다.

동굴의 비유는 선[좋은]의 이데아와 앎과 대상들, 그리고 앎의 단계들을 구분하고 있다. 연구자는 앎의 단계, 지혜의 습득의 단계의 따라 동굴의 비유를 4단계로 나누어 내용을 요약하고 소격화를 바탕으로 설명과 이해의 과정을 거쳐 해석해 본다(Heidegger, 1988 / 이기상, 2004: 31).



[그림 II-1] ‘동굴의 비유’의 동굴 형상

①단계(Cooper & Hutchinson, 1997: 514a~515c, 이하 저자 표기 생략): 지하동굴에 죄수들이 살고 있다(그림 II-1의 AB). 그 동굴에는 태양 빛을 향해 열려 있는 긴 입구가 있다. 죄수들은 손발과 목이 묶여 있고 움직일 수 없어 단지 그들 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다. 그들 위쪽과 뒤쪽에는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고, 그 불과 죄수들 사이에는 뒤쪽에 하나의 길이 있고 이 길에 이어 낮은 벽이 있다(그림 II-1의 EF, GH). 이 벽은 마치 인형극을 조정하는 사람이 자기 앞에 인형을 올려놓은 막처럼 쌓여 있다. 이 성벽처럼 생긴 곳을 따라 사람들이 인형이나 동물상들을 쳐들고 소리를 내며 지나간다. 죄수들은 동굴 바깥 정면에서 들리는 소리도 동굴 안을 지나가는 물체의 그림자가 내는 소리(그림 II-1의 CD에 투영됨)라고 생각한다.

동굴 속 죄수들은 모닥불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깜깜한 어둠 속에 사는 존재이다. 이 사람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 눈에 보이는 허상만을 진리로 본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듣는 것이 실재라고 생각하며,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있다.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묶여 있는 동료들도 그림자로만 인식할 뿐이다. 그들 뒤에서 타고 있는 모닥불의 존재도 모르고 있으며, 그 어떤 무엇도 알지 못한다. 동굴 속에 결박된 죄수들이 뒤에 있는 모닥불을 보지 못하

고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만 볼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은 나 자신을 모르고 있고 나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는, 어둠 속에 사는, 근본적으로 어리석은 존재이다.

②단계(515c~515e): 죄수들 중 한 명이 사슬에서 풀려나 강제로 불빛을 보게 된다. 죄수는 자기가 그림자로만 알고 있던 그 실물을 눈이 부셔 제대로 볼 수 없고 괴롭고 당황스럽다. 그는 전에 보았던 것이 지금 있는 것들보다 더 진짜라고 생각한다. 죄수는 아무 고통없이 볼 수 있던 이전의 사물 쪽으로 도망치려고 한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그것이 참이라고 믿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을 누군가가 그 어리석음에서 풀어주고자 한다. 쇠사슬에서 풀려난 죄수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듯이, 자기 내면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은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 사슬이 풀린 죄수는 동굴 밖이 아닌 동굴 안에서 자유로워진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력과 지혜가 없는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Martin Heidegger는 이 상태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그런 상태에서 사람은 모든 관점에서 참된 것과 멀리 떨어져 있고 세계에 대한 조망력도,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거기에서는 인간에게 무엇인가 결여되어 있기에 인간은 병든 셈이다. 구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구제는 무엇보다 앞서 병에 대한 올바른 파악을 전제로 한다(Heidegger, 1988 / 이기상, 2004: 45).

③단계(515e~516e): 풀려난 죄수는 눈이 부시는 고통스러운 상태에서도 동굴 밖으로 걸어 나온다. 높은 곳의 것들을 보게 되려면 익숙해짐이 필요하다. 그 죄수는 처음에는 그림자들을 제일 쉽게 또는 다른 것들의 상들을 보고 그다음으로 비로소 실물들을 보게 된다. 하늘, 별빛, 달빛, 햇빛을 보고 마지막으로 태양을 본다. 풀려나서 태양을 본 죄수는 동굴 속에서의 삶과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터무니없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그때의 동료 죄수들을 상기하고서는, 자신의 변화로 인해서 자신은 행복하

고 동료들은 불쌍하다고 여긴다. 동굴 속에서 사느니, 아무리 힘든 일이 일어나더라도 모든 것을 꺾어내어 지상에서 사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동굴 밖에서 빛나고 있는 태양은 최고의 이데아를 상징한다. 플라톤에게 이데아란 보이는 현실 세계 너머에 있는 원형(原形)이며, 우리가 보고 느끼는 세계는 단지 이데아의 모상(模像)이다(플라톤 / 손영운, 2007: 39). 플라톤은 이데아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굴의 비유’를 들었는데, ③단계에서 비로소 그 죄수는 이데아를 이해한다. 이 이데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Martin Heidegger가 말하는 ‘사유가 새롭게 착수하는 존재’의 차원이다(한병철, 2016 / 이재영, 2017: 51). 이데아는 존재자와는 다른 어떤 것이며, 이데아에 상응하는 말은 보여진 것, 시야에 들어온 것이다(Heidegger, 1988 / 이기상, 2004: 57). 여기서 존재자란 존재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며, 존재란 살아가는 상태로서의 나만의 실존과 실존의 본질을 찾아가는 존재를 말한다. 이데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 본질로서의 무엇임을 뜻한다. 인간은 존재자이면서 존재이다. 인간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인간의 삶은 의미없게 느껴지고 자신의 삶을 다루고 가꿔나갈 수 없다. 동굴 밖으로 나온 죄수는 자신이 지금까지 진리가 아닌 허상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어둡고 어리석었던 동굴 속에서 사느니, 지금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동굴 밖 세계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고 자신에 대해 통찰하면서 살겠다고 한다. 그는 그림자로만 인식했던 자신과 동료들을 이제 분명하게 지각하고 존재의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

④단계(516e~517a): 풀려난 죄수가 다시 동굴로 돌아가 그림자를 식별하는 경쟁을 하게 된다면, 그는 어둠에 익숙해지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가 지상에 다녀왔기 때문에 눈을 버리게 되었다는 소문이 생기고, 그는 죄수인 친구들의 비웃음을 사게 된다. 그뿐 아니라 그 죄수들은 자신들을 풀어주고 지상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든 붙잡아서 죽이려고 할 것이다.

연구자는 앎을 기준으로 ‘동굴의 비유’의 각 단계를 설명과 이해의 과정을 거쳐 해석해왔다. 이제 태양을 마주한 그 죄수가 자신이 아는 것을 실천하는 단계이다. 해방된 그 죄수는 동굴로 다시 내려간다. 그는 죄수들의 해방자로서의 철학자이다(Heidegger, 1988 / 이기상, 2004: 90). 그는 혼란스러움을 이겨내고, 최고의 이데아인 태양을 마주했으며 자신이 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려고 하는 철학자가 되었다.

플라톤은 풀려났던 죄수가 다시 동굴로 되돌아간 이후의 이야기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여기서 앞서 서론에서 말한 해석학의 ‘열린 결론’을 가질 수 있다. Martin Heidegger는 플라톤이 사물들의 존재와 본질에 대한 물음을 자유롭게 열어놓고 있다고 말한다. 끊임없이 삶 속에서 사색하는 철학자는 존재의 친구이다(Heidegger, 1988 / 이기상, 2004: 92). 인간이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사유하고 사색할 때, 진리를 마주하고 진정한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

2. 지혜와 철학상담

앞서 서론에서 연구자는 철학상담의 개념틀로 지혜를 들었고, 동굴의 비유의 해석 단계를 지혜의 습득 단계로 나누어 구분 지었다. 내담자로 하여금 실제 지혜를 획득하도록 하는 III장의 리콤폴르 해석학의 전유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지혜에 대한 선이해와 지혜와 철학상담과의 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지혜의 어원을 살펴보자. 지혜(sophia)는 고대 그리스어 σοφία에서 유래한다. 고대의 지혜는 skill, wisdom in common things, perfect scientific knowledge, philosophy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스어 사전의 정의에 따라 지혜의 의미를 살펴 보면, skill은 오늘날의 기술이나 기능의 의미가 아닌 ‘격조 있는 삶의 기술’을 의미한다. 고대의 지혜(智)는 오늘날의 지식(知 · knowledge)과 평범한 삶에서의 지혜와 기술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근대에 와서 지식 중심의 시대로 바뀌면서 지식과 지혜가 분리되고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지혜는 또한 철학(philosophy)과 호환하여 설명될 수 있다. 철학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으로 철학의 어원은 philo(사랑)+sophy(지혜), 즉 지혜에 대한 사랑이며, 철학의 시발은 고대 그리스다(서명석, 2020, 791). 고대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철학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플라톤은 지혜의 개념을 충실하게 분석한 최초의 기록이라 할 수 있는 『대화편(Dialogues)』을 남겼으며(Sternberg, 1990 / 최호영, 2010: 29),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 또는 철학은 맨 처음의 원인들과 원리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들보적인 학문이라 규정하였다(아리스토텔레스 / 김재범, 2009: 21). 이러한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고대에는 철학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있었고 일상에서의 삶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근대에 오면서 사람들은 생존에 시달리면서 철학을 잊고 살았으며, 지식은 풍부해졌으나 지혜를 잃어버려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이제 현대인들은 학문적이든 삶의 기술로써든 철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지혜의 본래 의미를 되찾고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지혜를 연구의 한 분야로 보게 되었으며, 현재 지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James Birren과 Laurel Fisher는 지혜를 이루는 몇 가지 요소들로 초연함, 지식, 인지와 인지 유형, 정서, 경험 등을 들면서(Sternberg, 1990 / 최호영, 2010: 456) ‘지혜’라는 용어의 개념과 용법에 대한 통합적 전망을 모색한다. 이는 지혜의 정의와 지혜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면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지혜가 삶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Lucinda Orwoll과 Marion Perlmutter는 다양한 지혜 연구자들의 연구에서 중복제시된 지혜의 암묵적 이론에 대한 서술어들로써 “이해하는, 박식한, 직관적인, 공감적인, 분별있는” 등을 들었다(Sternberg, 1990 / 최호영, 2010: 250). 서명석은 지혜를 3가지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인지적 측면의 지혜[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깊이], 정의적 측면의 지혜[인지적 측면의 지혜를 지지하고 선호하는 경향성], 행동적 측면의 지혜[인지적 측면의 지혜를 실제 삶에서 실행하는 능력]가 그것이다(서명석, 2018a: 97).

이 외에도 여러 연구자들이 지혜에 대해 실제 삶에서 적용하는 능력에 중점을 두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Jason Swartwood는 ‘지혜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좋은 결정을 하게 해 주는 지적인 덕’이라고 정의한다(Swartwood, 2013: 2).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계와 그 세계 속의 창조물들이 존재하고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 포괄적이고 조직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살고 수행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실천적 지혜라고 할 수 있다(Swartwood, 2013: 2).

학자마다 지혜의 속성과 요소들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지혜의 연구들에 대한 목표는 우리 인간들이 삶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삶의 지혜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음에 갇혀 있음을 반증해 주고, 인간이 지혜로운 상태로 변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이 어리석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주역』에 나오는 몽괘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혜의 서 『주역』의 64괘 중의 4괘인 산수몽괘를 살펴 보자.



(서명석, 2017: 74)

괘사는 다음과 같다. 몽괘는 상괘가 산이고 하괘가 물이다. 물 위에 산이 뒤 덮여 있어서 그 물이 흘러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해 어둡고 캄캄한 상태이다. 유학 사상에서 산과 물은 인(仁)과 지혜(智)의 비유로 활용된다(고대혁, 2015: 249). 이 상황을 타개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깨쳐야 한다. 어리석음을 오로지 혼자 깨닫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그렇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 원래의 패턴대로 돌아가기가 쉽다. 어리석음을 깨치기 위해서는 스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이상수, 2014: 180). 여기서 스승이란 어둠의 세계에서 밝음의 세계로 이어주는 숫[매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스승은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식을 주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문제의식을 키우도록 기다려 지혜의 실마리[슬기구멍]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대혁, 2015: 246). 어리석음을 깨닫고 지혜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숫[스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바로 여기에서 지혜와 철학상담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 현대인에게 잃어버렸던 철학과 지혜를 찾아 주는 우리 삶의 숫의 역할을 하는 것은 철학상담이다. 현

대인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삶의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성공, 비교, 물질, 권력 등 눈 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지혜를 쌓게 되면 삶에서의 문제를 다루는데 실수를 피할 수 있으며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져 행복한 삶을 이끌 수 있다. 철학은 우리의 삶의 근원과 실존을 다루는 우리 삶의 근본이며 지혜로운 길로 가는 길을 제공해 준다. 여기서의 철학이라는 말은 추상적인 이론이나 학문의 영역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닌 ‘철학함’, 즉 생활에서의 살아있는 실천을 의미한다. 철학상담은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상담자와 내담자가 대화함으로써 내담자의 지혜를 습득하는 것을 돕고 철학하는 삶을 돕는 것을 말한다. 삶에서의 철학함을 도우면서 현대인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철학상담이다.

철학상담은 통상 1981년 독일의 철학자 Gerd Achenbach가 철학상담센터를 개설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본다(Raabe, 2001 / 김수배, 2010: 22). 현재 많은 철학 실천가들의 주요 관심이 인간의 영혼과 마음의 질병 내지 질환의 치유에 있다.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내담자와 철학상담자 사이의 대화는 인간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도모하면서(이영의, 2009: 389) 인간의 마음의 더 깊은 영역까지 파고 들 수 있다. 철학상담은 물질적인 성공과 명예를 좇으며 살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고, 본래의 자신, 자신 고유를 되찾아 철학하는 시간을 향유하며 격조 있는 삶을 지향하도록 한다.

내담자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의 필수 요소는 대화이며, 특히 철학상담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철학적 대화를 나누는 Homo dialogus[대화하는 인간]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연구자는 철학상담의 과정에서 내담자가 지혜를 습득하는 것이 목표임을 전제로 하고, 대화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대화에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한다(서명석, 2018a: 49-53).

첫 번째로 상담자는 내담자보다 선진의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철학상담자는 내담자를 환자가 아닌 대화의 상대로 여겨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로 대할 수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식견과 안목이 내담자인 후진보다 더 높은 선진의 역할을 해야 한다. 내담자의 잠재성을 끌어내 주고 통찰력을 키워주려면 상담자는 선진의 자리에서 세상을 보는 탁월한 안목으로 내담자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숨은

의도를 보지 못할 때 그것을 가려내어 보게 하고 지혜의 길로 인도하는 지식과 현안을 가져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지식이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철학상담자가 내담자를 지혜로운 세계로 안내하려면 상담자는 풍부한 철학적 지식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철학상담자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동굴 밖 세계로 빠져나오도록 할 수도 있고, 상담자가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철학이론을 인용하지 않고도 내담자를 지혜의 길로 안내할 수 있다. 내담자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담자는 철학이론에 대해 큰 지식이 없어도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다. 지혜의 길로 가기 위해 철학상담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에서 전제되어야 할 또 하나의 전제는 인간은 세 부류의 발달 영역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다. 기존 감양의 영역, 외부인의 도움으로 더 확장될 수 있는 감양의 영역, 외부인이 도와주어도 더 이상 미치지 못하는 감양의 영역이다. 그 중에서도 Lev Vygotsky는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을 근접해 있으면서 발달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개념화했다. ZPD는 외부인의 도움으로 더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인간에게는 이 ZPD가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의 고유한 능력을 믿고 내담자와 대화를 통하여 창의적으로 변화시키고, 내담자는 상담자의 도움을 받아 기존 세계관의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세계의 지평을 열어 밝힌다(서명석, 2018a: 51-53). 지혜를 획득함으로써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훈련을 하는 데 있어 철학상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철학상담자는 내담자로부터 나올 것 같지 않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든지 관점을 제시하는 등의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Raabe, 2001 / 김수배, 2010: 93). 철학상담자는 내담자의 말을 경청하고 내담자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하는 것은 물론, 비판적인 질문과 코멘트, 적절한 질문으로 개방적인 대화를 창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Raabe, 2001 / 김수배, 2010: 30). 철학상담자는 내담자의 자율성을 키우고 스스로 자신의 제한된 세계관을 벗어나 지혜를 습득하도록 도와준다. 철학상담은 고도의 테크닉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철학실천이다. 상담자는 세상을 보는 안목, 감식안, 통찰력, 즉 지혜가 있어야 한다.

Ⅲ.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통한 철학상담의 실제

1.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 따른 철학상담의 실천: 전유의 단계

Ⅱ장의 설명과 이해의 단계에서 지혜와 철학상담의 접점을 찾으면서 현재 우리 삶에 주는 철학과 철학상담의 중요성을 짚어 보았다. 인간의 고통은 타자가 아닌 자신 내면의 어리석은 생각에서부터 온다. ‘동굴의 비유’를 현재로 소환하여 철학상담에 녹여 현재의 인간의 고통을 치유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죄수가 ‘동굴’에서 풀려나 진리를 찾는 과정을 철학상담의 과정에 대입해 활용할 수 있다. 위 Ⅱ장의 설명과 이해의 단계에서 ‘동굴의 비유’를 해석한 것을 토대로 철학상담의 과정에 놓아보자.

①단계: 어리석음 깨닫기

현대인의 삶의 고통은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호소한다. 내담자는 자신을 보지 못하고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다. 내담자는 자신이 관습과 고정관념에 얽매어 현상에 집착하여 살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내담자는 어리석음에 빠져있다.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것이 철학의 시작이며 지혜로 가는 첫걸음이다. 철학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내담자의 현재 호소 문제를 경청하고 어리석음을 파악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자신의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고 어리석음을 알도록 한다.

②단계: 문제의 원인 파악과 당면 문제 해결

철학상담자는 충성(忠誠)의 마음으로 내담자에게 충고(忠告)한다. 여기서 우리는 충성(忠誠)의 뜻을 현재 우리가 흔히 쓰는 ‘임금에게 충성함’의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충이란 참마음, 즉 진심을 뜻한다. 고는 ‘가르치다, 깨우쳐주다’의 의미이다. 충고(忠告)란 진실한 마음으로 가르쳐 줌을 뜻한다. 내담자의 말을

경청하고 내담자에게 진심으로 공감한다. ‘동굴의 비유’의 해석 ②단계에서 “인간의 마음의 병에 대한 ‘구제’가 필요한데, 그 구제를 위해서는 병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전제로 한다”고 하였다. 내담자가 가치관이나 세계관의 문제로 비롯되는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철학상담자는 문제의 즉각적인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로 하여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스스로 깨우치도록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나는 왜 우울하지? 나는 누구인가? 내 생각이 맞을까? 나는 관습에 파묻히고 육아 매여진 상태로 살고 있지 않을까?’ 등 존재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도록 한다. Martin Heidegger는 “자아는 타자를 기준으로 삼고 더 이상 보조를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게 된다”고 하였다(한병철, 2016 / 이재영, 2017: 52). 마음의 치유는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으로 시작된다. 나의 존재 의미를 알게 되면 삶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자체를 나와 동일시하지 않게 된다.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을 때 고통의 원인을 알게 되고 자신 스스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 자신과 문제를 분리해 두고 자신을 그대로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인식하도록 한다. 내담자는 관습이나 선입견에 휘둘리지 않으며 문제와 자신 사이의 거리를 두고 그 문제를 객관화하고 본질을 파악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다. 내담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여 당면 문제를 해결한다.

Ran Lahav는 어리석음을 깨달은 후 지혜를 습득하는 과정을 두 단계로 제시하였다. 첫째, ‘플라톤의 동굴’ 또는 세계관을 탐색하는 것이다(Lahav, 2012: 89). 자신의 행동, 감정, 사고를 제한하는 세계관을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특정 감정, 구체적 사건, 행동 등 일상생활의 특정 사건을 자세하게 알아본다. 둘째는 동굴의 경계를 넘어 나오는 길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 길의 탐색의 첫 단계에서는 상담자는 내담자의 매일의 사건들을 분석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내담자의 삶에서 말해주는 대안의 개념 또는 목소리를 찾는 것 그리고 그 대안의 목소리에 자신을 열고 그 목소리에 반응하는 것이다(Lahav, 2012: 81). 철학상담자는 내담자의 구체적인 삶을 탐색함으로써 내담자의 삶에 어떤 하나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이 상담자가 내담자의 어리석음을 찾아내는 포인트이다.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내담자는 자신의 동굴을 알아차리게 되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동굴이 자신의 인생을 육아매 왔음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빠져나오는 방법을 탐색한다(Lahav, 2012: 91). Ran Lahav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담자가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변화하도록 결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한다(Lahav, 2012: 92). 스스로 자신을 믿기도 어렵고 그리고 오래된 패턴으로 돌아가기도 쉽다. 동굴 속의 죄수가 태양 빛을 보고 눈이 너무 부셔 동굴 밖을 쉽게 걸어나올 수 없었듯이, 우리들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오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상담자는 산과술적인 침묵으로 내담자의 이야기를 경청한다(Raabe, 2001 / 김수배, 2010: 213). 산과술적인 침묵이란 내담자에게 적절한 질문을 던진 후 바로 답을 주지 않고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사고를 분만하도록 돕는 것이다. 내담자는 철학함의 연습을 하게 된다. 내담자는 ②단계에서 상담자의 도움으로 이러한 철학적 훈련들을 거쳐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알고 현재 처한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②단계가 최종 문제의 해결 단계는 아니다. 사슬에서 풀려난 동굴 속의 죄수는 완전한 해방을 이루지 못했다. 플라톤은 이 상태를 아프로쉬네[무통찰]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φρόνησις[phronesis · 통찰 · 실천적 지혜]의 반대 개념이다(Heidegger, 1988 / 이기상, 2004: 92). 내담자는 지혜를 획득하지 못한 상태이다. 내담자는 겉으로 보여지는 사슬은 풀렸지만, 자신의 현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며 동굴 밖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방황한다. 동굴 안의 죄수는 사슬은 풀렸지만 동굴 밖으로 나갈 용기가 없고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럽다. 내담자가 이제까지 자신 스스로 움아매었던 한계를 깨부수고 나가기에 고통이 따른다.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데 고통스럽고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것을 깨기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③단계: 지혜의 획득

③ 단계는 내담자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한계를 깨부수고 자신이 스스로 만든 경계를 뛰어넘는 단계이다. 내담자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비로소 지혜를 획득하는 단계이다. ‘동굴’에서 빠져나와 눈부신 태양을 마주하는 시간이다.

③단계는 다른 심리상담자와는 구별되는 철학상담자의 특성이 드러나야 하는

단계이다. 인간이 마음의 병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철학과 심리학이라는 두 가지 통로로 심리(心理)를 치료할 수 있다. 심리(心理)란 마음의 이치를 말하며, 인간의 심리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마음의 이치를 알아야 한다. 심리치료는 내담자를 질병(disease)을 가진 환자로 보는 반면, 철학상담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불편(dis-ease)을 겪는 대화의 상대로 본다(서명석, 2018a: 76). 철학상담은 특정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현대인이라면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마음의 병에 초점을 맞춘다. 환자가 아닌 정상인이지만 ‘영혼’에 병이 들어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주변과 삶의 문제의 넓은 영역으로 대화의 범위가 넓혀질 수 있다.

‘영혼’이라는 단어는 $\Psi\upsilon\chi\acute{\eta}$ 라는 그리스어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 그리스어 $\Psi\upsilon\chi\acute{\eta}$ 는 인간의 정신(mind), 영(soul)과 혼(spirit), 호흡(breath)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동사 형태인 $\Psi\upsilon\chi\acute{\eta}\tau\omicron\varsigma$ 은 ‘호흡하다(breathe) 그래서 살다 (live)’의 의미이다. 우리는 호흡하면서 살고 있으며 호흡하는 영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있다. 프쉬케는 인간의 호흡, 즉 삶을 뜻한다. 인간은 영혼이 없으면 죽은 삶과 같다.

영혼은 인간의 사고, 신념, 가치관, 가정 등을 포함한다(Rabbe, 2014 / 김수배, 이한균, 2016: 149). 현대인이 겪는 마음의 고통의 대부분은 자신에게서 비롯되며,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물을 인식하느냐에 따라 고통이 해소될 수 있다. 우리 자신이 세계와 인간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면 불필요한 감정이나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장영란, 2011: 205). 절망이나 불안, 허무감, 공허감 등은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들이다. 이러한 감정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감정들에 지나치게 사로잡히고 매몰되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가지고 온 어리석음-병의 문제를 검토하고 치료하기 위해 철학(philosophy)을 사용하여 영혼과 마음의 요소들, 즉 자신의 사고, 관념, 가치관을 돌아보도록 한다.

③단계는 철학을 바탕으로 인간이 가지는 당면문제 뿐만 아니라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관념적이면서 가치관과 연관된 문제까지 다루는 철학상담의 특성이 드러나는 특별한 과정이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지혜를 획득하여 인간으로서 참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를 안내하고 내담자의 내적인 신념, 제한된 세계관을 무한한 영역으로 확장시

키도록 한다. 내담자가 현재의 눈앞에 닥친 문제나 욕심에 사로잡혀서 좁은 시야에 갇혀 허덕일 때, 철학상담자는 내담자 자신의 존재 의미를 돌아보도록 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삶의 패턴을 분석하고 내담자에게 있는 숨겨진 의도와 깊은 근원을 파헤친다.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어리석은 생각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생각하도록 하고 대안의 개념을 찾도록 한다. 내담자는 깊은 철학적 사고를 통해 자신의 패러다임을 교체하여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게 된다. 내담자는 사물의 전모를 보는 통찰력을 키우고(Raabe, 2001 /김수배, 2010: 260) 지혜를 습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사슬에서 풀려난 죄수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동굴에서 빠져나오듯 내담자는 오랫동안 허상을 진리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음에서 벗어난다.

내담자의 철학적 탐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혜이다(Raabe, 2001 /김수배, 2010: 28). 철학의 맥락에서 우리가 지혜로울 때 우리 삶은 질적으로 밀도가 높으면서 행복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을 때 우리 삶은 질적으로 밀도가 낮으면서 불행할 수 있다(서명석, 2018a: 12).

②단계에서 내담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지만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철학하는 인간[Homo philosophicus](서명석, 2018a: 41)이 되어야 한다. 지혜는 깊은 철학적 사색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사유하고 다시 사색하는 철학함의 정식을 활용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찾아드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된다. 내담자는 자신의 사고의 패러다임을 교체하여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게 된다.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사물의 전모를 보는 통찰력을 키운다. 사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때 통찰하고 지혜를 얻게 된다. 이 순간이 아하 체험의 시간인데 항상 사색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이 시간을 마주할 수 있다.



[그림Ⅲ-1] 철학함의 파라디그마(서명석, 2018a: 42)

위 그림의 ‘철학함’의 과정에서 어느 하나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 삶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질문할 때 그 답을 발견하도록 삶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사유하고 사색하는 과정이며, 그 과정을 통해 아하체험에 이르게 되어 자신의 삶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된다.

철학상담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내담자를 동굴에서 빠져나오도록 돕는다. 철학상담을 실천하는 기본 바탕은 다양한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와 활용하는 것이다. ③단계는 철학상담자의 역량이 두드러지는 과정이다. 효과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철학상담자는 철학 이론들에 대해 전문 철학상담사로 불릴만한 정도의 철학 이론 지식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③단계에서 내담자는 깊은 사색의 끝에 아하 체험을 하고 지혜를 얻게 된다.

④단계: 지평의 확대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의 그 풀려났던 죄수는 왜 다시 동굴로 돌아가려 하는가? 내담자는 ③단계를 거치면서 자신의 사유 패턴 속에서 이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편견, 가정, 잘못된 관습 등을 인식하였다. 이제 그것들이 그 자신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뿐만 아니라 확장된 세계관의 맥락 속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그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주는가를 이해하게 된다(Raabe, 2001 / 김수배, 2010: 264). 플라톤은 동굴에서 풀려난 그 죄수가 다시 동굴로 돌

아간 이후의 행적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풀려났던 죄수가 왜 다시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동료들에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

“철학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요하더라도 도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지하로 내려가 그곳의 거주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어둠 속에서 식별하는 데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러면 그곳의 사람들보다 천 배 만 배 더 잘 보게 되고 그곳의 사물도 잘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동굴 밖에 나왔던 사람은 미와 정의, 선과 같은 진리를 이미 목격했기 때문이다(520b~520c).”

철학자란 삶의 본질에 대해 다루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도 관여하여 이로운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다. 내담자는 철학상담을 통해 오랜 사색의 시간을 거쳐 자신 삶의 철학자가 되었다. 이제 그는 자신을 돌보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타인을 이해하게 된다.

연구자는 철학상담의 과정을 ①~④단계로 구분하였다. 다만, 연구자는 ④단계에서는 내담자가 지혜를 획득한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철학상담의 실제 과정은 ③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다. 내담자는 결론을 열어 두는 상호 대화를 통해 자기 지식을 얻는 과정을 거쳤다(Raabe, 2001 / 김수배, 2010: 270). 그는 자신의 문제를 혼자만의 고민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그치고, 이론적으로 확대된 관점에서 수행하는, 무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의사소통 과정을 겪었다(Raabe, 2001 / 김수배, 2010: 270). 내담자는 자신의 사고의 영역을 무한히 확대시키고 자신과 타인의 삶에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는 앎에 도달하여 자신의 존재의 참모습을 알고 자신의 존재의 상태로 살아간다.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 열린 마음과 태도로 세계관을 넓히게 된다. 철학상담은 내담자의 당면문제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철학의 본질을 무시하지 않는다. 철학상담의 실제적 단계는 획일적이고 선형적으로 분명히 나뉘지는 것은 아니나, 위 ①~④까지의 단계는 어리석은 인간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경계를 넘어 지혜를 획득하

고 자신과 타인의 삶을 돌보는 ‘철학함’의 과정을 보여준다. 철학은 삶을 유익하게 살아가는 기술이다. 우리 인간은 철학을 통해 자신의 삶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이로운 방향으로 돌볼 수 있다. 철학상담은 그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내담자와 대화함으로써 어리석음에 빠져 허우적대는 내담자를 진리의 세계, 지혜의 세계로 안내한다.

2. 철학상담의 실제 사례

다음은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상담했던 사례 중 주요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3회기에 걸쳐 각 회기 당 약 1시간 동안 상담했으며, 내담자의 상황을 고려해 각 회기 상담을 위에서 말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통한 철학상담 ①~④단계에 구속받지 않고 각 단계를 오가면서 상담하였다. 연구자(이하 상담사례에서 상담자로 표기함)는 상담 과정 중에 녹음이나 기록 없이 내담자와 집중하여 대화하였으며, 상담이 끝난 후 상담내용을 정리하였다.

①회기

수현이(가명)는 또래 아이들보다 키도 훨씬 크고 신체적으로 성숙하여 한눈에 띄는 학생이다. 상담자는 수현이가 저학년 때부터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로 친구들과 친구 엄마들로부터 계속적으로 불만을 들어왔던 것을 알고 있다. 목소리도 크고 자기주장이 지나치게 강해서 담임 선생님과도 논쟁을 심하게 하는 학생이다. 수현이는 엄마와 동행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혼자 상담자를 찾아 왔다.

내담자: 선생님, ○○엄마가 그 친구랑 저랑 놀지 못하게 해요. 그 엄마가 말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진짜 어이없지 않아요?

상담자: 수현이 마음이 정말 상했겠구나. 그런 말을 들으면 누구든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지. 그런데 친구 엄마가 왜 그런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내: ○○가 우리 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학교 끝나고 학원 차량 기다리는 동안 그냥 얘기 좀 했어요.

상: 그렇구나. 근데 무슨 팀이야?

내: 제가 만들었는데요. 우리 반 애들 네 명이 모인 팀이에요. 이상한 모임 아니구요, 우리 엄마 가게에 모여서 같이 공부도 하고 조별 숙제도 같이 해요.

상: 그래. 선생님도 수현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 할 일을 스스로 잘 하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그냥 ○○랑 얘기만 했는데 그 친구 엄마가 수현이랑 놀지 말라고 한거야?

내: ○○가 저랑 얘기 안 하고 가버릴까 봐 그 친구 핸드폰을 숨겼어요. 진짜 팀을 떠나고 멀어질까 봐 불안했어요.

상: ○○는 왜 팀을 나간다고 해?

내: 제가 원하는 대로 많은 걸 결정한대요. 그리고 다른 애들이랑도 놀고 싶다고...

상: 수현이는 수업 시간에 발표도 잘하고 학급에서 리더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걸 잘 살리면 아주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데, 아이들이 왜 수현이를 힘들어 하는지 생각해 볼까?

내: 우리 아빠가 형제들이 아주 많은데요, 어릴 때 전부 골목대장이었대요. 아빠가요 제가 아빠를 닮아서 친구들 사이에서 어릴 때부터 대장을 맡는다고 했어요.

상: 그래. 수현이가 어렸을 때 수현이가 귀여워서 아빠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구나. 그 말을 듣고 수현이는 기분이 어땠어?

내: 좋죠.

상: 지금 수현이는 친구들한테 어떤 친구인 것 같아?

내: 애들이 짱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쌤도 저한테 학교 선생님들이 리더십이 있다는 얘길 들으셨잖아요.

상: 맞아. 그렇게 들었어. 그런데 수현이는 리더십이 뭐라고 생각해?

내: 카리스마 있는 거 아니예요?

상: 카리스마가 무슨 뜻이야?

내: 사람을 휘어잡는 거죠. 연예인들이 카리스마가 있어서 사람들 시선을 끄는 것처럼요.

상: 맞는 말이기도 하지. 그렇게 해 보니까 친구들 반응이 어땠어?

내: 따라주는 것 같은데요, 집에 가서 엄마들한테 홍보는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하고 친구들 엄마들이 우리 엄마한테 전화가 와요.

상: 학교 선생님이 수현이가 리더십이 있다고 한 게 어떤 면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아?

내: 조별 과제 때도 제가 아이디어도 많이 내구요, 엄마 카페에 애들 초대 해서 엄마한테 맛있는 거 해달라고 해서 먹고... 우리 팀 친구들은 여러 번 왔어요,

상: 수현이는 친구들이랑 노는 게 참 좋은가 보구나.

내: 네. 어떨 땐 집보다 학교 친구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좋아요. 어떤 애가 왕따 당하는 애가 있는데요, 가정환경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저는 가정환경이 안 좋은 것보다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게 더 슬픈 거 같아요.

상: 그 나이에는 학교나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집보다 많기도 하고 사회 생활에 적응하는 걸 배우는 시기라 친구가 중요하지. 그래서 수현이가 친구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초대받은 친구들이랑 초대 받지 못한 친구들이랑 기분이 어떨까?

내: 어...생각해 보니 초대 받지 않은 애들은 소외된 것 같고 기분이 나쁘겠네요. 초대받은 애들은 당연히 좋겠죠.

상: 그럼 같은 팀 애들은 모일 때마다 모두 초대 받는거야?

내: 그거는...엄마는 제가 알아서 초대하도록 상관 안 하시는데요...

상: 그럼 같은 팀인데 초대받지 못한 애도 또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내: 배신감 느낀다고 얘기해요...

상: 그럴 수 있지. 그럼 초대받은 애들은 어떤 마음일까? 다음엔 자기가 초대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 아...친구들이 불안하겠네요. 사실 전 친구들이 절 떠날까 봐 불안해요.

상: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누구나 그런 감정은 가질 수 있어. 사실 어른들도 다른 사람들이랑 끊임없이 이해 관계로 엮이지.

내: 정말요? 자꾸 불안해서 우리 팀을 만들고 팀 친구가 다른 애들이랑 얘기하거나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같이 가는 게 보이면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다른 애랑 얘기하지 못하게 하고 끌고 가버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팀 안에 있는 친구들조차 돌아가면서 왕따시킨다고 뒷담 들어요. 생각해 보니까 친구들이 다음에 자기가 왕따 당할까 불안할 거

같아요. 친구들도 저처럼 똑같이 불안할 거라고는 별로 생각 안 해봤어요. 겉으로는 센 척 제 마음만 숨기느라고요. 제가 저를 불안하게 하고 친구들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바보 같이 행동한 거 같아요.

상: 사춘기라서 모두들 예민하게 느낄 수 있고 친구들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더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지. 왜 수현이가 불안한지,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뭘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보자.

② 회기

내: 선생님, 생각해 봤는데요. 리더십이나 카리스마는 세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배려하고 상대방 마음도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테 제 마음을 털어놨어요. 선생님이랑 상담한 내용도 얘기해 줬어요. 제 마음을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선생님이랑 내 문제를 상담했다니까 그 친구가 제 마음을 좀 알아줬어요. 그래서 개네 엄마한테 잘 말 씀드리고 이제 사이 좋게 놀기로 했어요.

상: 그래. 구속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을 얻기 힘들겠지? 친구의 진짜 마음 말이야. 그런데 수현이는 마음이 왜 불안한 것 같애?

내: 전 외동딸이에요. 엄마 아빠가 절 예뻐해 주시고 가정환경도 나쁘지 않 구요. 근데 마음은 항상 외로운 거 같아요. 우울하기도 하구요. 반 친구 엄마들이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어른들이 저를 나쁘게 보는 것 같고 친구들이 떠날까 봐 무서워요. 저는 친구들이 좋고 사이 좋게 잘 지내고 싶은데 표현이 잘 안 돼요. 사실 전 요즘 많이 우울하기도 하고 친구들 이랑 속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뭔가 약해 보일 것 같고... 친구가 없는 건 아닌데 진짜 친구가 없는 느낌이에요. 외로운 것도 같고 불안하고 학교 가서 누가 내 옆에 없으면 안정감이 안 느껴져요. 친구도 없고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애들이 아는 게 싫어요. 공부도 잘 했으면 좋겠는데 학교에서는 그건 친구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상: 그래. 인생에서 친구가 없으면 참 심심하고 재미없는 인생일 거야. 특히 학창시절엔 더 그렇기도 하지. 그런데 수현이한테 친구란 정말로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내: 학교 친구, 학원 친구... 동네 친구...제 또래 애들이죠. 가끔 언니들도

같이 놀구요. 비밀도 털어 놓을 수 있고 필요할 때 항상 같이 있는거요.

상: 그렇구나. 친구란 학교 친구나 같은 또래 나이의 사람으로 고정시켜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서로 다른 나이의 사람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책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도 자기의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내: 책이 친구가 된다는 건 조금 들어봤는데 나 자신이 친구가 된다고요? 좀 처음 듣는데 뭔가 재밌는 얘기 같아요.

상: 그래.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나를 들여다 보고 내가 정말로 무엇을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 알고 나의 친구가 되어서 나를 챙겨주는 거지. 마치 친구가 또는 엄마가 챙겨주는 것처럼 말이야. 그렇게 나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더 잘 헤아릴 수 있고 배려할 수도 있고 말이야. 멋지지 않아?

내: ...사실 친구들이랑 놀 때 매일 재밌는 건 아니예요. 그냥 혼자 있으면 웬지 왕따처럼 보일 거 같고 그냥 친구가 다른 애랑 노는지 신경 쓰이고 그래요.

상: 서로의 생활을 인정해 주면서 각자 열심히 자기의 생활도 하고 자기 자유를 누리기도 하는 건 어떤 거 같애?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유행, 관습에 맞춰 자기를 놓치고 살면 자기 인생이 없는 거잖아. 말로는 매일 내 인생이니까 상관하지 말라면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일에 또는 뒷담이나 시선에 신경 쓰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아. 어때?

내: 별로네요. 빨리 어른이 돼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했지, 제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생각 안 하고 산 것 같아요.

상: 친구 말고 수현이가 관심 있는 건 뭐야? 좋아하는 거 말야.

내: 저 의외로 책 좋아해요. 전 사실 책도 좋아하고 혼자 있는 것도 잘 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바쁘셔서 그림책 보면서 시간을 잘 보냈거든요. 도서관도 혼자 가요. 도서관 냄새도 좋게 느껴져요.

상: 도서관 냄새가 좋다는 말이 신선하게 들리는데? 다음에 선생님도 도서관에 가면 냄새를 한번 맡아봐야겠다. 시립 도서관에 갔었어? 선생님은 수현이 또래 애들 중에 혼자 도서관 오는 애를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수현이 참 대단한데? 학교에서 도서관에 혼자 가 본 적 있어?

내: 아뇨. 상상 불가예요. 화장실도 친구랑 같이 가는데요.

상: 학교 도서관에 혼자 가는 걸 상상하면 어때? 어떤 친구가 혼자 도서관

에 가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내: 어떤 애가 혼자 학교 도서관에 가도 왕따처럼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좀 괜찮게도 생각되는데요. 근데 저는 혼자 가면 너무 이상할 것 같아요.

상: 항상 친구가 옆에 있었으니까 어색하긴 할거야. 그렇지만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일 거야.

③ 회기

내: 선생님! 지난주에 대박 경험을 했어요.

상: 기분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었어?

내: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혼자 가 봤어요. 그리고요, 점심 먹고 도서관에서 20분 정도 있었어요. 다른 반 애도 혼자 온 애가 있었는데 저 보고 놀라는 것 같았어요. 얘기는 못 했지만 서로 눈이 마주쳤고 뭔가 말이 통할 거 같고 기분이 좋았어요.

상: 그래. 책을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친친히 서로의 얘기도 나눌 수 있을 거야.

내: 그런데 불안감은 없어지지 않아요. 자존감이 낮은 걸까요? 엄마 아빠가 일이 바빠서 어릴 때부터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그랬는지 마음이 외로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집착하는 걸까요?

상: 괴로움도 기쁨도, 어리석음도 지혜도 모두 내 안에 있어. 자기가 왜 태어났고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봐. 내가 남에게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봐.

내: 내가 나를 사랑하도록 할거예요. 당신은~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 노래도 있잖아요.

상: 그래야지. 내가 나를 사랑하고 돌봐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나를 돌보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할까?

내: 맞아요. 친구들한테 잘 해 줄 거예요. 내가 불안해서 왕따시키면 다른 애들도 불안하고 서로서로 못 믿게 되니까요. 나를 믿고 친구를 믿고 불안해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전 마음이 독립적인 존재가 될 거예요. 나를 인정하고 불안감을 이기도록 노력할 거예요. 이런 얘기는 엄마랑도 친구랑도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선생님, 나중에 잘커서 놀러와도 돼요?

IV.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통한 철학상담의 의의

1. 자기 해석

사슬에 묶인 동굴 속의 죄수들은 자신과 자신 주변의 존재들을 제대로 볼 수 없다.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에 빠져있다. 인간은 동굴 속에 사는 현실 세계 속 존재이다. 인간은 관습, 편견, 잘못된 가정에 갇혀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살고 있다.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해 볼 여유를 갖지 못하고 생존에 허덕이며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삶의 의미를 잃어 버리고 길을 헤매게 된다.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들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며 걸으려는 화려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고통은 끊임없이 삶에 찾아오고 자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 마음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결국 스스로 삶의 종말을 맞기도 한다.

Eckart Ruschmann은 철학상담자는 ‘해석학적 실천가’(Raabe, 2001 / 김수배, 2010: 46)”라고 말한다. 철학상담에서 해석 또는 해석학은 내담자가 살아 왔으며 또 현재 살고 있는 “텍스트”를 해석하거나 이해하기 위한 공감적인 시도이다(Raabe, 2001 / 김수배, 2010: 44). Ran Lahav는 철학상담이 자신과 세계에 대한 해석에 참여할 수 있는 통제되고 안내되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한다(Raabe, 2001 / 김수배, 2010: 38).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통한 철학상담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아 보고 자기 해석을 시도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자기의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사유하고 사색하고 반성하도록 한다. 철학적인 사유, 반성(reflection)은 ‘잘못한 것을 뉘우치기 위해 되돌아보는 그러한 도덕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사유한 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등 어떤 것을 ‘반추’ 혹은 ‘숙고’하는 것을 의미한다(Marcel, 1952 / 이문호, 이명곤, 2010: 84). 반성은 나 자신을 하나의 질문으로 삼게 된다. ‘나 자신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나 자신에 대한 질문에 도달한다(Marcel, 1952 / 이문호, 이명곤, 2010: 87). 마음의 치유는 나 자신을 알고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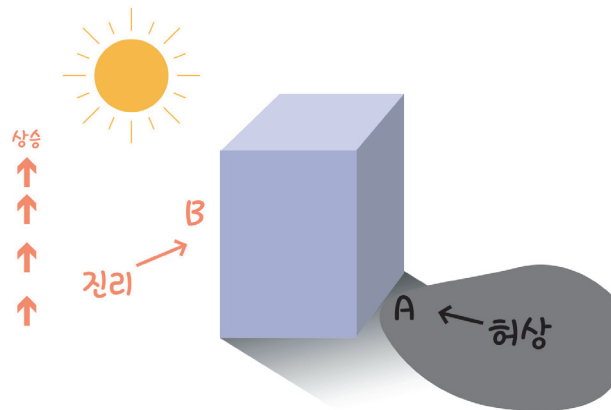
보지 않는다면 나의 존재 의미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고, 타인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사회적으로 적이 되기 어렵다.

철학상담의 목표는 내담자가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려 시도하는 것을 도와주기 이전에 일단 내담자가 스스로 말로 표현하는 “텍스트”에 대해 철저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데에 있다(Raabe, 2001 / 김수배, 2010: 26). Paul Ricoeur는 ‘인간이 마주하는 모든 대상’을 텍스트로 삼았으며(박상현, 2014: 31), 우리는 그 텍스트 속에 살고 있다. 해석학은 현재의 삶을 떠나서 이해될 수 없고, 삶 역시 끊임없는 해석의 과정에 놓여 있다(박상현, 2014: 30).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의 풀려났던 죄수가 다시 동굴로 돌아간 이야기는 끊임없이 돌아가는 해석학의 ‘열린 결론’으로 볼 수 있다.

연구자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통해 철학상담이 자신과 타인의 존재를 탐색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을 도출해 내었다. 인지치료 등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심리치료 기법이나 일반적 철학상담들도 철학에 기반한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자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리코어 해석학 이론의 도움을 받아 전유의 단계를 거치면서, 풀려난 죄수가 그림 속에 비친 모습이 자신이 알고 있는 실재가 아님을 깨닫듯이 철학상담이 내담자 자신의 진짜 존재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2. 자기 한계 넘기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혜의 세계로 안내하는 ‘철학함’의 과정을 보여주는 진수이다. 서명석은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단순화시킨 인간이 살아가는 진리와 허상이라는 두 세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그림IV-1] 인간이 살아가는 진리와 허상이라는 두 세계(서명석, 2018a: 72)

그림 속의 A의 세계는 상자에 가려져 있어 태양 빛이 보이지 않는 동굴 속의 허상의 세계이다. 정면으로 태양 빛을 받고 있는 B의 세계는 동굴 밖 진리의 세계이다.

● A의 세계 / ● B의 세계

어두움 → 밝음

거짓 세계 → 진리 세계

어리석음 → 지혜로움

foolishness → wisd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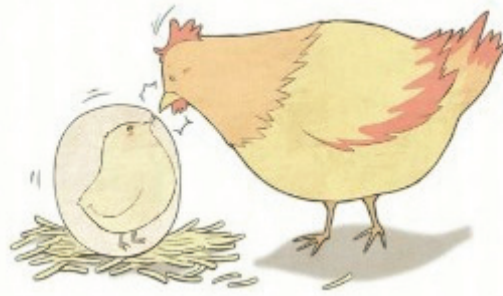
(서명석, 2018a: 73)

위 그림 속의 A의 세계에서 B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숫[스승·매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철학상담자이다. 동굴 밖으로 나와 진리의 세계, 지혜의 세계를 경험하고, 동료들에게 그 진리를 알리기 위해 동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거나 심지어는 죽음으로 몰릴 수도 있는 동굴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철학상담자이다. 어리석은 인간은 눈이 부셔 태양을 마주하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동굴 밖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하지만, 동굴 밖으로 나가도록 ‘철학함’의 결정과 용기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철학상담자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자신도 모르게 동굴 안에 갇혀 관습이나 편협한 사고에 얽매어 살면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두려움을 떨쳐내고 동굴 밖 지혜의 세계로 나가야 함을 말하고 있다. 철학상담은 허상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 광명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작업이다. 철학상담은 내담자가 어리석음에서 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돕기 위해 내담자에게 “안전한 항구”를 제공한다 (Raabe, 2001 / 김수배, 2010: 36).

현대인이 겪는 마음의 고통의 대부분은 자신에게서 비롯되며,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물[존재]을 인식하느냐에 따라 고통이 해소될 수 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마음의 두려움을 깨지 못해 남의 생각에 의지하고 표류하듯 생존에 떠밀리며 인생을 산다. 철학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깊은 사색을 통해 자기 삶의 텍스트를 해석하고 자기 검토를 수행하여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견 등으로부터 해방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도록 한다. 그동안 얽매어 왔던 관습과 패러다임을 깨부수고 지혜의 길로 걸어나오도록 돕는다.



[그림Ⅳ-2] 어미닭과 병아리의 두 부리가 만나는 출타동시의 세계(서명석, 2018b: 556)

구글 이미지 파일(원래 그림은 구글 이미지 파일에 있다.)

위 그림의 알 속의 병아리는 껍질을 깨고 세상에 나오고 싶어 한다. 하지만 알껍질을 혼자 힘으로 깨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때 어미닭이 한번 쪼아

주기만 하면 알 속의 병아리는 진짜 병아리가 되어 세상에 나와 혼자 설 수 있다. 위 그림의 어미닭과 병아리를 자기 한계를 뛰어넘도록 도와주는 철학상담의 구도 속에 집어넣어 설명할 수 있다. 철학상담은 내담자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철학적인 대화를 통해 지혜를 습득하여 자기 한계를 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빠져 살았던 악습이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생각에서 벗어나 완전히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꾸도록 한다. 소크라테스가 강조했듯이 아이를 낳는 것은 산파[철학자나 상담사]가 아니라 내담자이며, 내담자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상담사가 아니라 내담자 자신이다(김선희, 2015: 46). 철학상담자는 대화를 통해 내담자의 문제를 구체화시키고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 인간은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철학함의 정석, 끊임없이 질문하고 사유하고 사색함으로써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의미있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 수가 있다. 철학상담은 철학(이론적이고 학문적인 철학)에 대해 무지한 내담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숙고하도록 도와주고 그들의 곤경을 다루도록 도와줄 수 있다(Lahav, 2012: 81). 내담자가 자신이 동굴 속에 있음을 알아차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는 의지가 있다면 상담자는 내담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 동굴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안내할 수 있다. 철학상담자는 내담자와 대화를 계속 진행하면서 동굴 속의 죄수가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듯이 내담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사유하고 사색하도록 하면서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 준다. 그림 IV-2의 어미새가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도록 가볍게 껍질을 쪼아주듯이, 철학상담자는 내담자의 내적 지혜를 일깨우고 자기 내면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깨워주는 ‘산파’ 역할을 한다(Marinoff, 2003 / 김익희, 2006: 296).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습득한 관습이나 관념들을 진리로 보고 그것에 맞춰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 생각에 지나치게 사로잡혀서 자신만의 동굴 속에 갇혀 더 넓은 진리의 세계의 지평을 열지 못한다.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관념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야 하며, 오랜 친구처럼 가장하고 있는 유해한 관념들은 그 가면을 벗기고 추방할 필요가 있다(Marinoff, 2003 / 김익희, 2006: 66). 철학상담자는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내담자의 관념을 밝은 대화의

장으로 끄집어내고, 내담자는 그 관념이 진정으로 자신의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된다. 철학상담은 내담자를 진리의 세계, 지혜의 세계로 안내하여 내담자의 삶에 새로운 지평을 보여준다. 철학상담은 실존이 아닌 생존에 매몰되어 바둥거리는 현대인들에게 철학적 사고의 연습, 지혜의 함양 방법을 알려주고 안내함으로써 의미있고 행복한 인생으로 고양시킨다.

3. 관여와 참여

플라톤은 가지계(可知界)와 가시계(可視界), 사물의 본질을 깨우치는 이상의 세계와 본질이 아닌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는 현실 세계, 진리와 허상의 세계로 이 세상을 구분하였다. 플라톤의 이원론을 알기 쉽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동굴 안 세계와 동굴 밖 세계로 그려지는 ‘동굴의 비유’이다.

그러나 플라톤은 두 세계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감각계의 이데아계에 대한 ‘관여’라고 하는, 순수한 정신적인 세계와 감각적 현상의 세계에서의 연결을 추구하였다(Jacoby, 2001 / 안성찬, 2002: 41). 풀려난 동굴 속의 죄수는 동료들에게 자신이 본 진리를 알리기 위해 비웃음을 사고 또는 죽임을 당하는 것을 무릅쓰고 동굴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 동굴 밖 세계와 동굴 안 세계를 연결시켜 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다. 우리는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에 관여시켜야 한다(Jacoby, 2001 / 안성찬, 2002: 41). 인간은 현실이라는 바탕 위에서 실재하는 존재자이며 또한 실존하는 하나의 존재이다. 철학상담의 도움으로 영혼을 회복하고 끊임없이 찾아드는 고통을 치유하면서 사는 삶을 추구할 수 있다. 삶의 다양한 문제들은 현실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열어 놓는다. 우리는 오직 사유하고 사색함으로써 진리와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다(한병철, 2016 / 이재영, 2017: 52).

동굴 속의 죄수들이 결박되어 앞에 있는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동료들의 진짜 얼굴을 본 적 없듯이 우리는 타인의 존재 또한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풀려났던 죄수가 동굴로 다시 들어가 동료들의 해방자, 자기 삶의 철학자가 되었듯이 나의 존재와 타인의 존재를 똑바로 알아야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통한 철학상담은 현실에 실재하는 우리 인간이 현실 속의 자신과 타인의 삶에 참여하면서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도와준다. 철학상담은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의 삶의 텍스트를 해석하면서 현재 눈앞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문제도 예측하고 대비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V. 결론

현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쏟아지듯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고 많은 지식과 스펙을 쌓는 것을 요구하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그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경쟁하듯이 지식을 습득하고 쌓으려 노력한다. 그 방향에 맞춰 흘러가는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노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다. 고통이 없는 인간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이란 인간이 마음 속에서 지혜롭게 느끼는 존재의 충만감이다(서명석, 2018a: 12). 행복이란 존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지식이 아닌 지혜로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존재는 행복한 사람이고, 어리석음으로 덮여 있으면 그 존재는 불행한 사람이다. 우리는 어리석음을 자각하고 영혼을 각성하여 삶의 통찰을 얻을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영혼을 돌보는 일이 바로 철학(philosophy)이며, 그것의 실천이 철학상담이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리석다.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통해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와 진정한 자아를 찾고 진리를 찾길 촉구하고 있다. 동굴 속의 죄수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그것이 실제이며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굴은 실상은 허상을 보고 있으며 자신들의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세계가 전부라고 믿고 있는 어리석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굴을 의미한다. 눈이 부시는 고통을 겪고 마주하는 동굴 밖 세계야말로 어리석음을 깨부수고 나온 지혜의 세계이다.

‘동굴의 비유’의 삶의 과정,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은 철학상담의 과정과 같다. ‘동굴의 비유’는 현재 우리 삶과 시공간적 배경에 큰 거리가 있지만, ‘동굴의 비유’가 현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플라톤은 자신을 가두는 한계에서 벗어나 밝은 태양을 똑바로 보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이상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이데아론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데아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동굴의 비유’를 들었다. 이데아, 즉 ‘좋은’으로 가는 길을 동굴의 비유의 죄수의 행보로 말해주고 있다. ‘동굴의 비유’가 기록된 지 2500년이 지났지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죄수가 가는 길을 현

재 우리 삶에 적용하여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플라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현재 우리 삶에 적용하여 실천해보는 것이다. 그 역할의 선봉에 철학상담이 있으며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의 현대적 구체적 활동이 바로 철학상담이다. 연구자는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리쾨르 해석학 단계를 이용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철학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전유하였다. 철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인 철학상담이 실존적 고통을 겪고 있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어떤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지를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주는 메시지를 통해 알아보았다.

플라톤은 철학적 사고의 도움으로 제한된 ‘동굴’에서 벗어나 더 깊은 실재에 대한 이해와 더 완전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Lahav, 2012: 85). 동굴을 빠져나온 죄수처럼 우리가 관습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얽매어 왔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지혜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눈이 부시고 두려워 주저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라하브가 명시하였듯이 유유히 어두운 동굴에서 벗어나와야 한다. 그 선봉에 철학상담이 있으며, 의미있고 행복한 삶을 펼치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와 실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참고문헌

- 고대혁(2015). 『주역』 몽괘의 상징과 교육적 의미. *동양고전연구*, 58, 233-265.
- 공병호(2012).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게 최고의 인생을 묻다*. 서울: 해냄출판사.
- 권석만(2017). *현대심리치료와 상담이론: 마음의 치유와 성장으로 가는 길*. 서울: 학지사.
- 김기수(1997).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적 지혜와 교육의 실제. *교육철학*, 17, 9-27.
- 김선희(2015). *철학상담 나의 가치를 찾아가는 대화*. 파주: 아카넷.
- 김선희(2018). 철학상담의 창시자, G. 아헨바흐와의 인터뷰: 고통받는 사람을 위한 철학상담. *철학연구*, 120(1), 1-19.
- 김수동, 문형남(2010). 지혜개념과 그 계발. *교육철학*, 42, 1-26.
- 김정현(2013). *철학과 마음의 치유: 니체, 심층심리학, 철학상담치료*. 서울: 책세상.
- 김진아(2017). 아리스토텔레스 행복론의 철학상담적 함의: 실천적 지혜를 중심으로. *카톨릭철학*, 28, 153-176.
- 노안영(2011). *삶의 지혜를 위한 상담심리*. 서울: 학지사.
- 맹난자(2012). *주역에게 길을 묻다*. 고양: 연암서가.
- 박병준(2017). 현상학과 철학상담: 행복수업을 위한 철학상담의 방법론 모색. *철학논집*, 50, 9-33.
- 박병준, 홍경자(2018). *아픈 영혼을 철학으로 치유하기*. 서울: 학이시습.
- 박상현(2014). 수업담론에 대한 해석학적 성찰의 필요성: 가다머·리코르 담론을 중심으로. *교육철학연구*, 36(1), 29-51.
- 박은미(2010). 철학상담의 방법론으로서의 비판적사고 교육: 그 적용방법과 사례를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21(3), 413-451.

- 서명석(2013). 『동몽선습』 오류 텍스트의 현대적독법. **인격교육**, 7(3), 43-61.
- 서명석(2017). **주역상담&주역치료: 길을 잃다 묻다 답을 얻다**. 용인: 책인숲.
- 서명석(2018a). **철학상담&철학치료: 철학cafe**. 용인: 책인숲.
- 서명석(2018b). 철학상담의 교육세계. **교육문화연구**, 24(5), 551-563.
- 서명석(2019a). 철학적 산파법의 교육세계: 소크라테스의 스승역할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5(2), 1-14.
- 서명석(2019b). 『반야심경』의 교육적 의의: 고통의 치유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5(6), 781-797.
- 서명석(2020). 철학치료의 자리매김: 내담자를 철학학습자로 바라보는 하나의 시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 789-804.
- 아리스토텔레스 / 김재범 옮김(2009). **형이상학**. 서울: 책세상.
- 이상봉(2017).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나타난 철학상담의 원형: 영혼 돌보기와 영혼가꾸기. **철학논총**, 87(1), 403-422.
- 이상수(2014). **운명 앞에서 주역을 읽다**.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이영의(2009). 철학상담과 심리치료의 관계: 아헨바흐의 견해를 중심으로. **범한철학**, 53(2), 387-408.
- 이철우(2017). 철학상담 방법론에 대한 고찰: 철학상담 방법의 구조화를 중심으로. **현대유럽철학연구**, 44, 121-156.
- 임윤정(2014). 철학상담, 왜 철학하기인가? **동서철학연구**, 71, 407-438.
- 장영란(2011). 철학상담과 철학적 대화법: 플라톤의 대화법을 중심으로. **존재론연구**, 25, 203-234.
- 플라톤 / 권혁 옮김(2008). **법과 죽음에 대한 통찰: 소크라테스의 변명 外**. 서울: 돌출새김.
- 플라톤 / 손영운 글(2007). **국가**. 파주: 김영사.
- 플라톤 / 천병희 역(2017). **국가**. 파주: 숲
- 한병철(2010) / 김태환 옮김(2012). **피로사회**. 서울: 문학과지성사.
- 한병철(2016) / 이재영 옮김(2017). **타자의 추방**. 서울: 문학과지성사.

- 홍경자(2016). 한계상황으로서의 ‘고통’, 실존철학 그리고 철학상담. *현대 철학연구*, 42, 135-165.
- Blackburn, S. (2007). *Plato's Republic: A biography*. New York: Atlantic Monthly Press. / 윤희기 옮김(2014). *국가론 이펙트: 정의로운 인간과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서울: 세종서적.
- Bordt, M. (1999). *Platon*. Verlag Herder: Freiburg. / 한석환 옮김(2003). *철학자 플라톤*. 서울: 이학사.
- Carlisle, C., & Ganery, J. (Eds.) (2010). *Philosophy as therape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oper, J. M., & Hutchinson, D. S. (1997). *Plato: Complete works*. Indianapolis, IN: Hackett Publishing Company.
- Cragun Ryan T. (2020). Words of wisdom: New generations and new challenges. *Momon Studies Review*, 7, 73-86.
- Curnow, T. (2015). *Wisdom: A history*. London, CT, UK: Reaktion Books./ 정연우 옮김(2018). *지혜의 역사*. 서울: 한문화.
- Cushman, R. E. (2002). *Therapeia: Plato's conception of philosophy*.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 Fu, X. (2020). Moral education thought and enlightenment in Plato's Republic.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 and Education Research*, 3(10), 291-294.
- Germer, C. K., & Siegel, R. D. (2012). *Wisdom and compassion in psychotherapy: Deepening mindfulness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Inc. / 서광스님, 김나연 옮김(2014). *심리치료에서 지혜와 자비의 역할*. 서울: 학지사.
- Hall, E. (2019). *Aristotle's way: How ancient wisdom can change your life*. New York: Vintage Books. / 박세연 옮김(2020). *열 번의 산책*. 서

을: 예문아카이브.

- Hall, S. (2010). *Wisdom*. New York: Vintage Books. / 김소희 옮김(2012). **무엇이 그들을 지혜롭게 했을까**. 서울: 리더스북
- Hamilton, E., Cairns, H. (1961). *The collected dialogues of Plato: including the letter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tegan, V. (2019). Therapy or counseling? Current directions of the philosophical practice. *Revue Roumaine de philosophie*, 63(2), 365-380.
- Heidegger, M. (1988). *Vom wesen der wahrheit* Frankfurt: Vittorio Klostermann GmbH. / 이기상 옮김(2004). **진리의 본질에 관하여**. 서울: 까치글방
- Henscheid, J. M. (2019). Introduction: Teaching wisdom and goodness. *The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67(1-2), 10-13.
- Jacoby, E. (2001). *50 Klassiker philosophen*. Germany: Gerstenberg verlag. / 안성찬 옮김(2002). **클라시커 50 철학자**. 서울: 해냄출판사.
- Kekes, J. (1983). Wisdom.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20(3), 277-286.
- Lahav, R. & Tillmanns, M. V.(1995). *Essays in philosophical counseling*.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정재원 옮김 (2013). **철학상담의 이론과 실천**. 서울:시그마프레스.
- Lahav, R. (2012). Philosophical voices of self-transformation. *Journal of Humanities Therapy*, 3, 81-96.
- Lahav, R. (2016). *Stepping out of Plato's cave: Philosophical counseling, philosophical practice and self-transformation* (2nd ed.) Vermont: Loyev Books.
- Lee, H., & Choi, H. (2019). Applying critical Thinking to philosophical counseling. *Journal of Humanities Therapy*, 10(1), 65-86.
- Marcel, G. (1951). *Le Mystere de l'etre I: Reflexion et mystere*.

- Presence de Gabriel Marcel. / 이문호, 이명곤 옮김(2010). **존재의 신비 I : 성찰과 신비**. 서울: 누멘.
- Marinoff, L. (2003). *The big questions: How philosophy can change your life*. Bloomsbury Publishing PLC. / 김익희 옮김(2006). **철학상담소**. 서울: 북로드.
- Plato. *Politeia*. / 최현 옮김(2007). **플라톤의 국가론**. 파주: 집문당.
- Raabe, P. B. (2001). *Philosophical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London: Praeger. / 김수배 옮김(2010). **철학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시그미프레스
- Raabe, P. B (2014). *Philosophy's role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Maryland, USA: Rowman & Littlefield / 김수배, 이한균 옮김(2016). **상담과 심리치료에서 철학의 역할**. 서울: 학이시습.
- Reinhard, R. / 김현정 옮김(2011). **마음이 아픈데 왜 철학자를 만날까**. 서울: 예문.
- Ricoeur, P. (1981). *Hermeneutics and the human science: Essays on language, action and interpret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윤철호 옮김(2017). **해석학과 인문사회과학: 언어, 행동, 그리고 해석에 관한 논고**. 파주: 서광사.
- Ross, W. D. (1951). *Plato's theory of ideas*.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 김진성 옮김(2011). **플라톤의 이데아론**. 서울: 누멘.
- Ryan, S. (1999). What is wisdom? *An International Journal for Philosophy in the Analytic Tradition*, 93(2), 119-139.
- Solbakk, J. (2006). Catharsis and moral therapy 1: A platonic account. *Medicine, Health Care, Philosophy*, 9(1), 57-67.
- Steel, S. (2011). The pursuit of wisdom in education. The University of Calgary Doctoral Dissertation.
- Steel, S. (2014). *The pursuit of wisdom and happiness in educ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박수철 옮김(2018). **지식은 과거지만 지혜는 미래다**. 서울: 이름북.

- Stern, P. (1997). The rule of wisdom and the rule of law in Plato's Statesma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2), 264-276.
- Sternberg, R. J. (1990).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edited by Robert J. Sternberg*.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최호영 옮김(2010). *지혜의 탄생*. 21세기북스.
- Su, Y. (2019). How philosophical counseling eliminates the problem of stagnation. *Journal of Humanities Therapy*, 10(2), 45-68.
- Swartwood, J. D. (2013). *Cultivating practical wisdom*. University of Minnesota Doctoral Dissertation.
- Trine, R. W. (1992). *In tune with the infinite*. 최현 옮김(1992). *탁월한 지혜*. 오죽헌.
- Zhang, L. (2019). The philosophical counseling according to Tao The Ching. *Journal of Humanities Therapy*, 10(2), 137-150.

A B S T R A C T

The Significance of Philosophical Counseling in Plato's 'the Allegory of the Cave'

Mi-Hye Kim

Major in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Myoung-Seok Seo, Ph. D.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significance that philosophical counseling provides to our lives by bringing Plato's "the Allegory of the Cave" to the present time and interpreting it. In order to interpret Plato's "the Allegory of the Cave", the researcher makes use of the theory of Ricoeur's hermeneutics. The theory of Ricoeur's hermeneutics undergoes the process of explanation, understanding, and appropriation, and the whole process accompanies estrangement (distanciation).

Plato's "the Allegory of the Cave" is a summary of the dialogue between Plato's brother Glaucon and his mentor Socrates. The prisoner in the "Allegory of the Cave" hesitates to go outside at first because it is so painful

to leave the cave. However, he finally overcomes the pain, experiences the world outside the cave where the sun shines, and returns to the cave to share the truth with his fellow cave dwellers. With the help of Ricoeur's hermeneutics, the researcher interprets the freed prisoner, who goes back into the cave to tell his fellows in the cave the truth, as a philosophical counselor in the present sense. In addition, the prisoner is also a counselee who has acquired wisdom, that is, he has become a philosopher of his own life. The prisoners, who are chained in the cave and believe the shadows cast upon the cave wall are real, are we human beings-trapped and floundering in our own worldviews and customs. They are humans who are engulfed by their own foolishness in the darkness and are unable to see the true forms of objects and truth properly. However, it is also none other than a human being that comes out of the cave to the sun, faces the truth, acquires wisdom, and returns to the cave to share it with his fellow prisoners. They refer to philosophers, philosophical counselors, and further, to all those who "practice philosophy" in life. Based on the "open conclusion" of the hermeneutic cycle, these are people who enjoy the freedom of their own existence.

Philosophical counseling not only helps counsees to settle the specific problems in life, but also can guide them out of their foolishness and into the path of wisdom. In order for philosophical counselors to cultivate the wisdom of counsees, first, they should help counsees realize "Plato's Cave", that is, to realized their own foolishness, and to encourage them to explore their own existence. Second, they should search for the path for counsees to cross over the boundary and out of the cave. To do this, they should analyze the events that their counsees go through every day and find alternative concepts that speak from the lives of their counsees. They make use of ceaseless questions, reasons, and thoughts, all of which are proper processes in performing philosophy.

The prisoner's actions in Plato's "the Allegory of the Cave" are the same as the process of philosophical counseling. In an actual philosophical counseling session, the whole process of leading counselees out of their foolishness and into the path of wisdom is like what happens in the Allegory of the Cave. The significance of philosophical counseling through Plato's "the Allegory of the Cave" is to lead counselees, who suffer being trapped in their own foolishness, to the path of wisdom so that they may live a meaningful and happy life.

※ Key words: Plato's 'the Allegory of the cave', hermeneutics, philosophical counseling, wisdom, foolishness